

냉동돼지고기 수입 이렇게 대처하자

종돈부문

종돈개량체계 확립과 질병 차단 시급



오 하 식 과장
(제2종돈능력검정소)

1. 돼지고기 수입의 의미

돼지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 되기도 전인 1994년 3월에 5천톤의 수입을 시작으로 총 2만5천톤이나 되는 돼지고기를 수입하브로서 UR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에 수입할 킬로그램 21,930톤을 초과하는 대단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국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하여서는 언제든지 킬로그램에 상관없이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의 양돈산업이 노출되어 있고 1997년 7월의 완전개방과 맞물려 더욱 어려운 양돈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수입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여건속에서 양돈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양돈인 스스로의 생산비 절감 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우수 종돈의 확보와 종돈으로 인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고 우수 종돈의 인공수정에 의한 빠른 개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만 무한경쟁시대에 낙오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2. 종돈개량 체계의 확립

돼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우수종돈의 확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1천두 이상의 종돈을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무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도입된 우량 유전자원을 체계적인 육종계획에 의해 거시적 안목으로 육종집단을 구성하고 육종사업을 수행하여야만 종돈의 외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의 모든 종돈개량기관 및 민간 종돈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개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간 종돈장은 자체에서 검정을 실시하여 개체선발을 하고 있으나 모든 기록이 보다 정밀한 검정에 의해 농장전체의 수준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산자검정도 동시에 실시되어 모돈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후대 검정을 통하여 자손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육질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후대검정은 민간 종돈장이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국내에는 민간 종돈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국가기관인 국립종축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핵돈군을 유지하며 후대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개량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 종돈장의 검정성적과 개량기관의 검정성적을 종합하여 개량도를 평가·분석하여 종돈장의 개량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종돈으로 인한 질병 손실의 최소화

우수한 종돈의 확보와 보급도 중요한 경제행위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천8백 억원이라고 한다. 질병의 전달 매체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직접적 전달매체는 바로 종돈의 도입이다.

국내에 알려진 많은 질병들이 외국 종돈의 도입에 의한 전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도입된 질병을 한꺼번에 없앨 수만 있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지만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 종돈장의 위생지식의 보급과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병원균의 침입을 차단하고 분양되는 종돈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보다 건강한 종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우수종돈의 인공수정 활용

개량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공수정은 덴마크의 경우 종돈장에서 이용률을 75% 이상의 목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급률이 1.5%~2%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공수정의 확대보급을 위해

서는 첫째, 인공수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좋은 정액이 안정되게 보급될 수 있고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결되어 어느 양돈농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능력돈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값싸고 쉽게 정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나 개량 관련 단체에서 인공수정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고능력돈을 확보하여 능력을 공인하고 위생관계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양돈농가가 쉽게 우수한 유전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인공수정도 놀라게 확대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 양돈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근간은 고능력 종돈을 확보하고 고능력 종돈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활성화 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종돈을 유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무한경쟁의 큰 대들보가 될 것이다. **■**